

한옥마을 색다른 夜行, '전주다움' 을 담아

(야행)

25일부터 이틀간 '2019 전주문화재야행'
8개 테마·2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풍성'
유명 유튜버 10명이 참여 유튜브 생중계도



전주한옥마을의 색다른 야간 풍경과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재, 다양한 공연을 함께 즐기는 전주문화재야행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풍남문 일원에서 2019 전주문화재야행 1차 야행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주문화재야행은 오는 9월 21일~22일로 예정된 2차 야행을 포함해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문화재야행은 앞서 지난해 문화재활용사업 평가 '전국 1위, 최우수 야행'에 선정되는 등 전주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야간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올해 야행을 짧은 감각을 가진 기획자와 청년을 중심으로 참신함과 색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더욱 세련

된 축제를 만들고, 오직 전주만이 할 수 있는 '전주다움'이 담긴 지역 특화형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전주의 정체성이 담긴 경쟁력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전주문화재야행은 '문화재 술사의 8(八)야심작(夜心作)'을 주제로 8개의 테마와 하루 26개의 프로그램으로 보다 풍성하게 구

성해 선보일 예정으로 역대 최대 인원인 619명(운영 16명, 스태프 34명, 출연 및 참여자 401명, 자원봉사 168명)의 인적자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401명의 출연 및 참여자 중 33명을 제외한 368명이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중인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돼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과 세계적인 문화도시 전주의 도시 정체성을 재확인시킨다는 각오다.

특히 올해 전주문화재야행의 주목할 점은 유명 유튜버 10명이 참여해 공개방송을 통해 전세계 유튜브들에게 전주한옥마을의 야경과 역사의 흔적이 담긴 문화재, 전주의 문화 등 전주문화재야행에 대해 소개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전국 대학생들이 전주한옥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며 다양한 문화재를 체험하고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 발전 방향 등을 토론했던 '문화재 활용가의 탄생'도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빛의 술사(야경,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문화재 술사(야로, 밤에 걷는 거리) △이야기 술사(야사,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그림 술사(야화, 밤에 보는 그림) △

공연 술사(야설, 밤에 감상하는 공연) △음식 술사(야식, 밤에 즐기는 음식) △여행 술사(야숙,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홍정 술사(야사, 진상품/장시 이야기)의 8개 테마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올해 야행에서는 △달빛차회,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조선시대 치킨격인 포계 무료 밤찬 제공 등으로 꾸며지는 '음식술사' △문화재 활용가의 탄생 등으로 꾸며지는 '여행술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작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성격의 '홍정술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전주문화재야행이 진행되는 오는 25일에는 오후 11시까지 경기전 야간입장이 가능하며, 늦은 시간 한옥마을을 밝혀주는 관객을 위해 어진박물관과 루이엘모자박물관, 한옥마을역사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박물관 등 전주한옥마을 내 문화공간 6곳은 오후 10시까지 특별 야간개방을 진행한다.

2019년 전주문화재야행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야행 홈페이지(www.jeonju.night.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훔날리는 꽃잎에 봄을 띄워 떠나보내

'봄날은 간다' 주제곡
장르 불문 경연 펼쳐

훔날리는 꽃잎에 봄을 띄워 떠나보내는 마음을 담은 춤과 노래, 연주실력을 뽐내는 콘테스트가 열렸다.

봄날은간다 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노래 '봄날은 간다'를 단일 주제곡으로 한 장르를 불문한 경연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축제 경연 한마당에서는 전국에서 몰린 25개 아마추어 밴드, 합창단, 무용단 및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의회 이미숙, 정삼길의원 등 여러 내빈들이 참석 한벽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과 함께 봄의 낭만과 문화를 향유했다.

이번 경연에서는 이례적으로 록밴드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는데, 개인날오후 밴드는 독창적인 곡해석에 의한 편곡, 록에 클래식을 가미한 바이올린과의 협연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례적으로 록밴드가 '최우수상'

특히, 바이올린 서해민씨는 가는 봄을 아쉬워 하는 마음을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에 담아내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대상을 받은 개인날오후 밴드의 보컬 김선규씨는 "록밴드가 소화하기 힘든 곡으로 경연에 참여해 기량을 모두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팀내 큰형인 기타 최중환의 헌신적인 노력과 팀의 막내 피아니스트 임선희, 드럼 김인태 등 멤버들의 탄탄한 연주 실력과 호응으로 마음껏 노래 할 수 있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노래 봄날은 간다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에 고 백설희씨가 부른 곡으로 너무 환해서 슬픈 봄날의 서정을 표현해 시인 등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말이라는 평가다.

이를 모티브로 봄날은간다 축제조직위원회와 아동문화기인 소아 신천희 스님은 해마다 이 축제를 준비해 문화도시 전주에서 취미 예술인들에게 문화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완주군, 25~26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사진 공모전

완주군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사진 공모전을 연다.

완주군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술(酒)놀이터 행사를 담은 일반인대상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는 특별기획전으로 '나비와 꽃이 된 술잔속 기생'을 연계한 해어화 놀이를 열고 있다. 영화(해어화)의 생황 한복 입기와 조선 왕의 분장으로 유명한 분장(後鏡)과(대표 이은경)의 이색 분장과 포인트 메이크업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경각산 아래의 자연풍광을 고스란히 담은 박물관 내 야외정원은 지난 4일 번지 없는 주막으로 개장되면서 알록달록한 예쁜 소품들로 방문객들의 습터이자 포토존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지난 2015년 10월 모악산을 바라보는 경각산 아래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술 테마 유물 5만5000여점과 새 동지를 불었다.

물방울 모양의 형태를 담은 술 박물관은 개관 이후 많은 방문객들이 만들어준 한껏 사진들로 사진찍기 좋은 예쁜 박물관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스물웨딩 장소 등 웨딩사진 촬영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박물관은 제1회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사진공모전을 통해 일반인들의 눈에 담겨진 박물관 안과 밖 유물과 자연 풍광을 담은 좋은 사진을 발굴해 박물관 온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이중복 기자



남원이 낳은 명무 조잡녀 살풀이 춤이 세계인에 첫선을 보인다고 남원교육문화관은 밝혔다.

명무 조잡녀의 '살풀이춤' 세계인에 첫 선

24일 남원교육문화회관 '다문화와 함께하는 BOOK&북 글로벌 콘서트'서 선봬

남원이 낳은 명무 조잡녀 살풀이 춤이 세계인에 첫선을 보인다고

조잡녀 살풀이 춤은 오는 24일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다문화와 함께하는 BOOK&북 글로벌 콘서트에 각국의 전통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번 행사는 남원교육문화회관 주관으로 열리는 문화행사로, 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를 통한 다문화가정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며, 1부에서는 각국의 전통놀이와 언

어블 도서 전시 등 12가지 다양한 체험행사가, 2부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3개국의 전통춤과 우리춤을 교류하는 공연이 각각 펼쳐진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잡녀 명무는 제89회 춘향제에서 '소명(召命)'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바 있으며, 조잡녀전통춤보존회 대표인 정명희 교수가 남원살풀이를 비롯해 남원승무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친다.

특히, 정명희 교수는 우리 춤을 처음 접하는 다문화인 가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춤에

대한 해설과 함께 따라해 보기 시간 등을 가질 계획이다.

정명희 교수가 이끄는 조잡녀전통춤보존회는 올 한해 남원시와 함께 조잡녀 명무의 우리 춤을 보존·계승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기획공연 및 공개전수 등 국내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무대에도 나서며, 프랑스와 일본의 공연 요청으로 5월부터 세계무대에서 전설의 춤꾼 조잡녀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